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석탑교수소식

발행일 2017년 5월 18일
발행인 정태현
편집인 손주경
고려대 문과대학 발간기획실
Tel. 02-3290-1310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NEWSLETTER

No. 01 <창간호>

창간사

문과대학 15개 학과의 同伴圖生을 위하여



정태현 (문과대학 학장)

‘교육구국’의 시대적 명제를 안고 112년 전 1905년에 개교한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가 일제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1946년 비로소 대학의 본령인 문과대학을 출범시켜 국문, 영문, 사학, 철학과 등 네 옥동자를 출산한 지 올해로 71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문과대학은 15개 학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문과대 교수님들의 소통로로서 석탑교수 소식지를 창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축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문학은 송곳 같은 비판정신과 바다 같은 포용력을 겸비한 지혜의 샘입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은 격동의 현대사를 지내는 동안 사회가 요구할 때마다 ‘자유 정의 진리’를 포효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성으로서 지혜의 샘 역할을 과시했습니다. 여러 지표가 보여주듯이 문과대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수님들의 분투와 노고에 힘입어 한국의 인문학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인문학을 둘러싼 시대와 환경이 이전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인문학은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다진 기본을 바탕으로 우리 문과대학이 연구 방식과 시야를 더욱 넓혀 곧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전공의 벽을 넘어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를 선도하면서 미래를 보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문과대학은 15개 학과별로 各自圖生하는 관성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물론 이제까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문학의 특성이나 장점을 발휘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관성에 젖어 지내다 보니 다른 학과, 내 옆의 연

구실 교수님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대학으로 번역되는 University의 어원이 ‘공동체’라는 출발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문과대학이 이제까지 개별 학과가 축적한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과대학 15개 학과가 各自圖生을 넘어 ‘더불어’ 발전하는 同伴圖生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5개 학과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문과대학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후배교수들과 후학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교수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석탑교수 소식지 창간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소식지가 문과대학 모든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기초적 정보의 창이 되고 서로를 잇는 가교가 되어 ‘더불어’ 발전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간호라 부실합니다만, 앞으로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좋아진 소식지가 될 것이라고 자위해 봅니다.

15개 학과가 同伴圖生 하면서 응비하는 문과대학으로 거듭날 가까운 미래를 떠올리면서 따뜻한 생각에 젖어 봅니다. 

CONTENTS

- >> 01 창간사 및 학사일정
- >> 02 전임교수 인사 소식
- >> 03 졸업식, 입학식 소식
퇴임교원 동정
- >> 04-05 문과대학 소식
- >> 05-09 전임교수 동정
- >> 10 부속연구소 대내외 활동
- >> 11 BK21플러스 사업단(팀) 소개
- >> 12 코어사업단 소식
- >> 13 박준주기금 인문지원사업 소식
- >> 14 장학금 현황 및 발전기금출연
- >> 15-16 신간소식

학사일정 2017학년도 제1학기

2월	1~6	수~월	제1학기 수강신청(재입학생 포함)
	1~27	수~월	제1학기 휴·복학 신청
	21, 22	화~수	제1학기 신입·편입생(외국인전형) 수강신청
	22~28	수~화	제1학기 등록
	25	토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8	화	2017학년도 입학식(예정)

3월	1	수	삼일절(공휴일)
	2	목	제1학기 개강
	2~20	목~월	조기졸업/부전공신청
	3~9	금~목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20~22	월~수	복수전공 신청

4월	3~28	월~금	학설계전공 신청
	12~14	수~금	융합전공 신청
	20~26	목~수	제1학기 중간고사

5월	3	수	석가탄신일(공휴일)
	5	금	개교기념일, 어린이날(공휴일)
	9	화	대통령선거일(임시공휴일)
	10~12	수~금	이중전공 신청

6월	6	화	현충일(공휴일)
	7~9	수~금	재입학 신청
	15~21	목~수	제1학기 기말고사
	22	목	여름방학 시작, 여름계절수업 개강

7월	19	수	여름계절수업 종강
----	----	---	-----------

8월	1~4	화~금	제2학기 수강신청(재입학생 포함)
	1~25	화~금	휴·복학 신청
	15	화	광복절(공휴일)
	23, 24	수, 목	신입·편입생(외국인전형) 수강신청
	24~30	목~수	제2학기 등록

문과대학 전임교수 인사

● 학장단
문과대 신임 학장단이 3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문과대학장에는 한국사학과 정태현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정태현 학장은 한국사연구회 회장과 남북

역사학자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신임 교학부학장으로 불어불문학과 손주경 교수, 연구부학장으로는 중어중문학과 김준연 교수, 기획부학장으로는 한문학과 송혁기 교수가 취임했다. **석탑교수**



● 본부
본교 교무부총장에 사회학과 박길성 교수가 3월 1일 취임했다. 신임 박길성 교육부총장은 문과대학 학장과 대학원 원장,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포럼 의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위원과 세계한류학회(World Association for Hallyu Studies)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길성 교무부총장은 현재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어 있다.
한편 학생처장에 서어서문학과 이재학 교수가 3월 1일부로 임명되었으며, 기초교육원장으로 중어중문학과 장동천 교수(2016년 4월 9일 취임)와 국제어학원장으로 영어영문학과 이희경 교수(2013년 12월 23일 취임)가 활동하고 있다. 고대신문사 주간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가 3월 1일부로 취임했다. **석탑교수**

● 학부장 (2017년 3월 1일 현재)

학 부	학 부 장 임 기	비 고
인 문 학 부	윤재민	고전번역협동과정주임 겸직
	2017.02.01-2019.01.31	
국제어문학부	박성철	
	2016.08.01-2018.07.31	

● 학과장/전공주임 (2017년 3월 1일 현재)

학 과	학과장 / 주임 임 기	비 고
국어국문학과	장 경 준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6.02.01-2018.01.31	
영어영문학과	김 양 순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7.02.01-2019.01.31	
철학과	하 중 호	학과장
	2017.02.01-2019.01.31	
	정 인 교	
	2017.02.01-2019.01.31	대학원 주임
한국사학과	허 은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7.02.01-2019.01.31	
사학과	조 명 철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7.02.01-2019.01.31	
심리학과	허 태 균	학과장
	2017.02.01-2019.01.31	
	김 학 진	
	2017.02.01-2019.01.31	대학원 주임
사회학과	김 진 영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6.08.01-2018.07.31	
독어독문학과	김 재 혁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7.02.01-2019.01.31	
불어불문학과	지 영 래	학과장
	2017.02.01-2019.01.31	
	이 영 훈	
	2017.02.01-BK사업 종료시까지	대학원 주임
중어중문학과	조 동 매	학과장
	2017.02.01-2019.01.31	
노어노문학과	김 진 규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5.08.01-2017.07.31	
일어일문학과	채 성 식	학과장
	2016.02.01-2018.01.31	

학 과	학과장 / 주임 임 기	비 고
서어서문학과	배 지 완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7.02.01-2019.01.31	
한문학과	송 혁 기	학과장
	2017.02.01-2019.01.31	
언어학과	김 성 도	학과장, 대학원 주임
	2017.02.01-2019.01.31	
중일어문학과	정 병 호	중일어문학과 대학원 주임
	2017.02.01-2019.01.31	
과학기술학 융합전공	김 철 규	융합전공 주임
	2016.08.01-2018.07.31	
인문학과 정의 융합전공	이 진 한	융합전공 주임
	2017.02.01-2019.01.31	
EML 융합전공	이 재 학	융합전공 주임
	2016.08.01-2018.07.31	
LB&C(언어, 뇌, 컴퓨터) 융합전공	신 지 영	융합전공 주임
	2016.04.01-2018.01.31	
인문학과 문화산업 융합전공	송 혁 기	융합전공 주임
	2016.04.01-2018.01.31	
GLEAC(동아시아학) 융합전공	김 준 연	융합전공 주임
	2016.04.01-2018.01.31	
의료인문학 융합전공	김 양 순	융합전공 주임
	2017.04.19-2019.01.31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권보드래	대학원 주임
	2016.08.01-2018.07.31	
영상문화학협동과정	김 성 도	대학원 주임
	2017.02.01-2019.01.31	
고전번역협동과정	윤 재 민	대학원 주임, 인문학부장
	2015.08.01-2017.07.31	
문화유산학협동과정	김 기 형	대학원 주임
	2016.08.01-2018.07.31	

정년(명예) 퇴임교원 소식(2017.02.28.일자)



2017년 2월 27일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정년 퇴임식이 열렸으며, 문과대학은 당일 17시 서관 132호에서 한성열 교수(심리학), 최선 교수(노어노문학과), 이기식 교수(독어독문학과)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전임 문과대 학장(중어중문학과)은 세 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 문과대학 부설연구소장 (2017년 3월 1일 현재)

연 구 소	연 구 소 장
영미문화연구소	신혜원 교수
행동과학연구소	조양석 교수
독일어권문화연구소	김재혁 교수
러시아·CIS 연구소	김진규 교수
언어정보연구소	유석훈 교수
철학연구소	오상무 교수
한국사회연구소	이명진 교수
중국학연구소	홍윤기 교수
글로벌일본연구원(2015.5.7.자변경)	서승원 교수
한자한문연구소	심경호 교수
번역과레토릭연구소	이영훈 교수
역사연구소	민경현 교수
KU마음건강연구소(2015.4.3.자변경)	최기홍 교수
응용문화연구소	김성도 교수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이재학 교수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이상우 교수
지혜과학연구센터	남기춘 교수
한국사연구소	박대재 교수
한류융복합연구소	김기형 교수
동아시아인문사회연구원	김준연 교수
번역인문학연구원	이영훈 교수

제110회 학위수여식 개최

2017학년도 입학식 개최

인촌선생의 ‘공선사후’의 정신을 기억하길

개척하는 지성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혁신을 지속해



고려대학교는 2월 25일(토) 오전 10시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고려대학교 제110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영예스러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많은 분이 함께 한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앞으로 활약하게 될 사회에서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포용의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여러분이 새롭게 향해하는 거친 바다에는 풍랑이 일고 암초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학문을 연마한 이곳 고려대는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공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인촌선생의 ‘공선사후’의 정신을 기억하길 당부하며 새로 출발하는 졸업생들의 멋진 미래를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총 731명의 문과대학생이 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참고로 2016학년도 기준 고려대 학부 전체 취업률은 66.6%이며, 문과대학 취업률은 69.4%이다. ▶

고려대는 2월 28일(화) 오전 10시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2017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서 염재호 총장은 “저는 앞으로 백년을 살게 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21세기에는 기존 20세기의 방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내야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밤새 노력하는 것이 공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길 바란다.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 호기심이다. 이제 고려대학교 안에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지식을 찾아 여러분 나름의 여행을 떠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대는 재작년부터 학생들



이 더 이상 학점과 스펙에만 의존하는 나약한 지성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 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찾아 풀어가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고려대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실험은 어느 대학보다 먼저 이뤄지고 있다.”며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커가길 당부했다.

2017학년도에는 총 861명의 신입생이 문과대학에 입학했다. ▶

퇴임교원 주요활동

국어국문학과

❖ 홍종선 교수

- ▲ 『현대 한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 1』(공저, 한국문화사, 2016)을 출간하였다.
- ▲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가 주최한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와 극복 방안> 공개세미나에서 “남북한 어문규범 차이의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2016.11.01).

❖ 서연호 교수

-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주년 기념 <강릉농악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무형문화재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2016.11.07).

❖ 김흥규 교수

- ▲ 『교사인문학』(공저, 세종서적, 2017)을 출간하였다.

❖ 최동호 교수

- ▲ 신곡문학상 시상식 후 열린 <동계수필문학세미나>에서 “노벨상과 한국문학의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했다(2017.02.18).

사회학과

❖ 김문조 교수

- ▲ 광화문 교보생명에서 열린 <미래포럼 정기포럼>에서 “부조화 패러다임으로 본 한국사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2016.10.24).

- ▲ 밝은사람들연구소 주최 학술연찬회에서 “분노의 사회적 원천과 파장”을 발표했다(2016.11.19).

-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를 발표했다(2016.11.11).

- ▲ 중앙일보에 시론 『리셋 코리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게재했다(2016.01.02).

- ▲ 서울신문에 시론 『사회통합, 헛된 구호여선 안 된다』를 게재했다.

- ▲ 『한국사회학』에 논문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를 게재했다(2016.10).

- ▲ 『사회사상과 문화』에 논문 『노년기 종교 활동과 죽음관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다(2016.12).

불어불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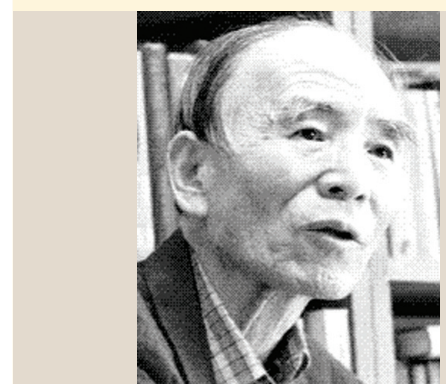
❖ 황현산 교수

- ▲ 기욤 아폴리네르의 『동물시집』(역서, 난다, 2016), 『사랑받지 못한 사내의 노래』(역서, 민음사, 2016), 『교사 인문학』(공저, 세종서적, 2017), 『선배수업』(공저, 서해문집, 2017), 『X: 1990년대 한국미술』(공저, 현실문화, 2016)을 출간했다.

- ▲ 한겨레신문에 <황현산 칼럼>과 문예서평지 <Axt>(격월간)에 연재하고 있다. ▶

퇴임교원 부고

최재석 명예교수님 부고



조선후기사회사 연구에 ‘균분상속론’을 제시하는 등 큰 발자취를 남긴 최재석 사회학과 명예교수님께서 2016년 10월 9일 오전 향년 90세로 별세 하였습니다.

경북 경산 출신인 고인은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중앙대와 고려대에서 후학을 육성하였다.

초기에는 전공 분야인 한국가족제도사, 한국사회사를 연구했다. 조선시대 분재기(分財記·재산 상속문서)를 통해 17세기 중반까지 아들, 딸이 똑같이 상속을 받았다는 논문 「조선시대의 상속제에 관한 연구」는 큰 업적으로 꼽힌다.

최 명예교수는 1966년 모교 교수로 부임해 1991년 정년퇴임했다.

문과대학 소식

1. 2017 QS Subject Rankings 평가

2017년 3월 8일 <2017 QS Subject Rankings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본교는 전체 46개 세부전공 평가 중 8개 분야에서 최상위권(1~50위)에 진입하며 국내 종합사립대학으로서는 98위를 차지하며 가장 먼저 세계 100위 안에 진입했다.

특히 문과대학의 Modern Language 전공은 24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상위권에 자리했으며, 100위권에는 Sociology 전공(52위), Linguistics 전공(56위),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전공(83위) 등 총 3개 전공, 200위권에는 Psychology 전공(151위)이 진입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

2. 문과대 전임교수 논문 및 저역서 업적 현황

(2014.01.01-2016.12.31)

문과대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전체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제전문학술지 138편, 국제일반학술지 43편, 국내전문학술지 623편, 국내일반학술지 19편, 기타학술지 75편 등 총 1036편의 학술논문을 해당전공분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출판사에서 저역(편역)서 총 402권을 출간하였다.

1) 논문

구분	세부구분	편수	계
국제전문학술지	A&HCI	24	138
	SCI	20	
	SCIE	19	
	SCOPUS	7	
	SSCI	56	
	기타	12	
국제일반학술지		43	898
국내전문학술지		623	
국내일반학술지		19	
기타학술지		75	
계			1036

2) 저역서(국내, 국외 포함)

구분	국내	국외	계
저서	174	35	209
역서	120	3	123
편서	61	4	65
기타	5		5
계	360	42	402

3. 석탑강의상 및 우수강의상 소식

2016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양 및 전공과목의 수강소감 설문 결과에 따라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한 교원 및 강사에게 부여되는 석탑강의상 수상예정자 총 156명 중 문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 및 강사 총 29명(총30강좌)이 수상하였다.

또한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강의상 수상자는 총 462명으로서 문과대학에서는 70명의 교원 및 강사가 수상하였다. 수상자 전원 초청 만찬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총장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며, 문과대학에서는 석탑우수상 강의자에게 5월 17일 학장실에서 상패를 전달했다.

4. 문과대학 전임교원 현황

2017년 현재 문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총 131명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명이 신입교원으로 채용되었다. 향후 2019년까지 총 15명이 정년퇴임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이후 문과대 전임교원 수는 평균 총 135명으로서 교원 1인당 정원 내 학생 수는 평균 29명이다. 이 수치는 경쟁대학인 연세대학 문과대학 교원 1인당 정원 내 학생 수 13명(2016년 기준, 10개 학과, 전임교수 113명)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철학과와 사학과를 기준으로 국내외 경쟁대학들의 교원 수는 다음과 같다.

◆경쟁대학 철학과, 사학과 교원 수 비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북경대	동경대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사학	15*	27	14	68	25	54	62	46
철학	10	18	8	67	20	21	20	24

(*사학 6명 +한국사 9명)

5. 문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및 교수총회 개최

2017학년도 1학기 문과대학 전체 교수회의가 지난 3월 23일(수) 오후 5시 132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염재호 총장과 김재욱 기획예산처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정태현 신입학장이 인사말을 통해 문과대 발전방안마련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신입 부학장들이 문과대학의 현안과 코어사업단 계획을 소개하였다. 전체 교수회의 후 문과대학 교수총회가 개최되었으며, 투표를 통해 윤재민 교수(한문학과), 박성철 교수(독어독문학과), 박상수 교수(사학과)가 문과대학 교수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교수의원의 임기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6. 위원회 소식

1) 학술진흥위원회

문과대학 교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여 인문학적 지식의 창출을 도모하고, 창출된 지식을 문과대 구성원 간에 공유하며,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진흥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학술진흥위원회는 문과대학 문이회 주관, 박준구 기금 사업 심의 및 평가, 금호아시아나 기금 사업 심의 및 평가, 연구소 협의회 관련 행사의 지원 및 협력, 문과대학-일본대학 학술교류회 주관 시행, 문과대학 해외-국내 석학 강연회 선정과 지원, 기타 문과대학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획과 실천 등의 활동을 논의, 지원할 예정이다.

학술진흥위원회는 4월 5일 제1차 회의, 4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추진업무를 파악하고 국외석학 초청강연지원 심사, 박준구기금운영위원회의 인문융합세미나 현황, 인문저술사업 결과보고, 박준구 기금운영 성과발표회 개최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임 토의조를 구성하였고, 문과대학 특성화연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한편 제1차 문이회가 4월 12일 박준구인문세미나실에서 장경준 교수(간사, 국문과)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2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규형 교수(영문과)가 신간 『고슴도치 시대의 여우』에 대해 발표했다. 학술진흥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활동기간은 2017년 3월 18일부터 2018년 3월 17일까지 1년이다.

구 분	이 름	소속 / 직위	기 타
위원장	심경호	한문 / 교수	
위 원	장경준	국문 / 교수	문이회 간사
"	김정석	영문 / 교수	
"	이승환	철 / 교수	
"	김학진	심리 / 교수	
"	김진영	사회 / 교수	
"	강제훈	한국사 / 교수	
"	손주경	불문 / 교수	당연직(교학부학장)
"	김준연	중문 / 교수	당연직(연구부학장)
"	송혁기	한문 / 교수	당연직(기획부학장)
실무위원	이명림	행정실 / 차장	
"	이호선	행정실 / 과장	

2) 발전기금위원회

문과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기금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문과대학 발전을 위한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 문과대학 발전 기금 모금을 위한 방안 모색, 문과대학 관련 주요행사의 기획 및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이다. 발전기금위원회는 4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금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기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교우위원들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문과대학 소식 <계속>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비 고
위원장	정태현	한국사학과 / 교수	문과대학장
위원장	윤은기	교우회장	문과대교우회장
위 원	김국현	교우회 사무국장	
위 원	조성택	철학과 / 교수	
위 원	남기춘	심리학과 / 교수	
위 원	정병호	일어일문학과 / 교수	
위 원	조대엽	사회학과 / 교수	
위 원	송상기	서어서문학과 / 교수	
위 원	이재학	서어서문학과 / 교수	
위 원	이희경	영어영문학과 / 교수	
위 원	허태균	심리학과 / 교수	소위원회(발전계획 TFT)
위 원	박대재	한국사학과 / 교수	소위원회(발전계획 TFT)
위 원	송혁기	한문학과 / 교수	당연직(기획부학장) 발전계획 TFT 간사
위 원	김준연	중어중문학과 / 교수	당연직(연구부학장) 소위원회(발전계획 TFT)
위 원	손주경	불어불문학과 / 교수	당연직(교학부학장) 소위원회(발전계획 TFT)
실무위원	이명림	문과대학행정실 / 차장	
실무위원	이호선	문과대학행정실 / 과장	

7. 학술교류협정

문과대학은 3월 29일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인문대학(UCRCHASS) Milagros Peña 학장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양 대학은 향후 일반적인 학술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공통의 관심사와 전문지식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4월 21일 문과대학을 방문한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Susan Dodds 학장과 양 대학 간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8. 멘토링상담센터 운영

멘토링상담센터(센터장 고영건 교수, 심리학과)는 지난 2016년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센터는 이중·복수전공 선택 및 대학원 진학 관련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문과대학 졸업 후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멘토링 기회 제공, 문과대학 학생에게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문과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교수, 졸업생, 재학생) 연결의 플랫폼, 캠퍼스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2016년 1학기

멘토링 유형	교수 멘토링 상담	대학원생 및 학부생 멘토링 상담	심리 검사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회)	외국인 유학생 적응수준 및 교우관계 실태조사
참여 학생 수	42명	32명	208명	147명	52명

② 2016년 2학기

멘토링 유형	교수 멘토링 상담	대학원생 및 학부생 멘토링 상담	인문코어 인문인 재양성 프로그램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회)	외국인 학생 학습 도우미 1:1 멘토링
참여 학생 수	20명	25명	505명	65명	137명

9. 복합매체실 운영

복합매체실(실장 이희경 교수, 영문과)은 문과대학 차원에서 진행하는 수업 중 복합매체실의 성격에 부합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영어영문학과 Korea University-Waseda University Cross-cultural Distance Learning Program(고려대-와세다대 문화간 원거리 학습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과대학 차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화상회의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복합매체실 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문과대학 행정실에서 관장한다.

10. 남부구치소 인문학 강의

문과대학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인문학 확산과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와 공동으로 남부구치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강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도 남부구치소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문과대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10회의 강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재능기부 형태이며, 코어사업단에서 연사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교수는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연구부학장(중문과 김준연 교수)에게 문의하면 된다. 석탑교수

국내·국제학술대회 개최 현황

국어국문학과

❖ 최호철, 김정숙 교수

- ▲ <한국어문학 연구·교육 학술대회>를 인도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에서 개최했다(2016.11.18~19).
- ▲ <제23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회의>를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했다(2017.1.19~20).

영어영문학과

❖ 윤조원, 신혜원, 이희경, Peter McAuley 교수

-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과 협력하여 <1916년 아일랜드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초청 강연회>를 "Irish Revival Week"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사진 자료 전시회 및 단편영화 시리즈 "After '16"을 상영했다(2016.10.24~29).

사회학과

❖ 조대엽 교수

-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원장 조대엽)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KU노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노동대학원은 개원 후 22년간 노동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자 한국 노사정의 뿌리로서 축적한 자원과 역량을 포럼에 공유했다.

- ▲ <후기 비교사회학대회> “발전 이후의 비교사회학: 노동”을 개최하고 개회사를 맡았다(2016.11.11).

❖ 이명진 교수

- ▲ <후기 비교사회학대회> “발전 이후의 비교사회학: 노동”을 개최하고 환영사를 맡았다(2016.11.11).

❖ 김수한 교수

- ▲ <후기 비교사회학대회> “발전 이후의 비교사회학: 노동”을 개최하고 사회를 맡았다(2016.11.11).

중어중문학과

❖ 최용철 교수

- ▲ 한국홍루몽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6년 동계학술발표회를 “홍루몽의 이미지 세계”를 주제로 개최하였다(2016.12.16).

일어일문학과

❖ 서승원, 정병호, 채성식, 조영남 교수

-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서 개최한 한국일본학회

에 참석했다(2017.2.28).

한문학과

❖ 심경호 교수

- ▲ 근역한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충남대학교에서 “한국한문학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양일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2017.02.10~11).

❖ 윤재민 교수

- ▲ 한국고전번역학회를 맡고 있으며 <제15회 학술대회>를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성신관 110호에서 개최했다(2016.12.17).

언어학과

❖ 김성도 교수

- ▲ <한국영상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이미지의 인간학 Ⅱ”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303호에서 개최했다(2016.10.22).
- ▲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혁명: 초학제성의 모험”을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 경영관 B204호에서 개최했다(2016.12.02). 석탑교수

학술행사 및 연구프로젝트 현황

국어국문학과

❖ 정우봉 교수

- ▲ 일본 경도대학교 고문헌 현지조사에서 추사 김정희의 친필서첩,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신자료 등을 발굴했다(2017.2.13.~17).

영어영문학과

❖ 윤조원 교수

- ▲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of Jamesian Studies>(The American University of Paris, France)에서 논문 “Marriage Plot and Its Discontents: the Legacy of Jamesian Masculinity”를 발표했다(2016.10.20~22).

한국사학과

❖ Leighanne Kimberly Yuh 교수

- ▲ Kyushu University에서 열린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Workshop>에서 “Late Nineteenth Century Modern Education in Korea: The State, Ideology and the Refashioning of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를 발표했다(2017.02.25~26).

심리학과

❖ 김현택 교수

- ▲ <가상환경을 이용한 범죄관련 암묵적 기억의 뇌지문 찾기> 과제를 수행 중이다. 구법학관 205A를 활용한 ‘실제’ 모의범죄 또는 205A와 똑같이 제작된 가상환경을 이용한 ‘가상환경’ 모의범죄를 수행하여 EEG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3D 스캐닝 카메라를 사용하여 실제 장소를 측정, Unity 5 게임엔진을 사용하여 실제로 피험자가 가상환경 내에서 돌아다니며 지시한 모의범죄(절도)를 수행하게 되는데, 피험자는 Oculus Rift DK2 Head-mount display(HMD) 장비를 착용하고 모의범죄를 수행하여 모니터로 보는 것과 달리 실제 가상환경 내에 위치하는 듯한 실재감을 느끼며 모의범죄를 수행할 수 있다(2017.01.01~현재).

❖ 김채연 교수

- ▲ <Deeper Dream: 인공 지능 기반 예술 작품에 대한 반응 측정을 통한 예술 선호 연구>와 <감각의 조응: 다중감각 상호작용 연구의 일반화, 확대 및 적용>으로 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 연구를 진행했다(2016.06.~2017.05).

- ▲ 서울대학교 미학과에서 “Issues in

Empirical Aesthetic, Methods of Perception and Cognitive Psychology, and Current Directions in Neuroaesthetics”을 주제로 강연했다(2017.02.20~22).

❖ 허태균 교수

- ▲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여가 매트릭스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2016.03~2020.02).

사회학과

❖ 박길성 교수

- ▲ 세계한류학회의 회장으로 영국 옥스포드에서 개최한 <The 4th World Congress for Hallyu>에서 개최사를 맡았다. 더불어 “Cultural Contagion and Hallyu Session”을 주관했다.

❖ 김철규 교수

- ▲ 제주대학교에서 <SSK 공동 세미나> “자연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푸드,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원광대와 공동주최했다(2016.02.02).

❖ 윤인진 교수

- ▲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에서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nt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다(2016.10.17).

- ▲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Migrant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를 강연했다(2016.01.26).

- ▲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에서 “Becoming a Vegetarian in Korea: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Vegetarian Diets in Korea Society”를 강연했다(2016.01.31).

독어독문학과

❖ 박성철 교수

- ▲ 일본 츠크바대학에서 열린<TEACH 세미나>에 참석했다(2017.03.12~14).

불어불문학과

❖ 손주경 교수

- ▲ 고전르네상스영문학회 2016년 제49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롱사르의 욕망의 시학”을 발표했다(2016.10.08).

- ▲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에 선정되어 “프랑스 근대문학론의 토대와 배경: 15-16세기 시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016.11.01~2018.10.30).

중어중문학과

❖ 최용철, 장동천, 김준연, 조동매, 홍윤기 교수

- ▲ BK21플러스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사업단에서 해외석학(이뤄핀(衣若芬)) 초청 강연회를 진행했다(2016.10.17).

❖ 장동천, 홍윤기 교수

- ▲ BK21플러스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사업단에서 해외석학(후지이쇼조(藤井省三)) 일본 동경대학(東京大學) 중문과) 초청 강연회를 진행했다(2016.10.21).

❖ 최규발, 권혁준, LIXIN JIN 교수

- ▲ BK21플러스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사업단에서 해외석학(명쓰잉(鄧思穎)) 초청 강연회를 진행했다(2016.11.10).

일어일문학과

❖ 김충영 교수

- ▲ 오사카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오사카 대학원 문학 연구과 공동워크숍>에 참석했다(2017.01.18~20).

❖ 유재진 교수, 정병호 교수

- ▲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국제윤리비평윤리학회에서 발표했다(2016.10.01~05).

❖ 정병호 교수

- ▲ <나고야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2016.10.28~30).

- ▲ 인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2016.11.30~12.02).

- ▲ 교토에서 열린 <2017 교토 서울 타이베이 동아시아 차세대 포럼>에 참석했다(2017.02.15~16).

❖ 조영남 교수, 서승원 교수

- ▲ 북경에서 열린 <아시아 신진 연구자 공동연구포럼>에 참석했다(2016.11.18~20).

❖ 김수미 교수

- ▲ 고려대 글로벌 일본 연구원과 일본 국문학 연구 자료관의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일본에 방문했다(2017.02.12~18).

서어서문학과

❖ 안영옥 교수

-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및인문과정에서 “돈키호테와 리더십”을 강의했다(2016.10.13).

학술행사 및 연구프로젝트 현황 <계속>

- ▲ 충북대학교 박물관대학에서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암악과 플라멩코”를 강의했다(2016.11.03).
- ▲ LAMI(인문과예술경영연구소)에서 “돈키호테”를 강의했다(2017.01.23).

한문학과

- ❖ 윤재민 교수
 - ▲ 한국고전번역학회와 한국고전번역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5회 학술대회> “문집 번역의 제문제(4)”(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성신관 110호)에서 논문 「漢文 古典翻譯의 一問題」를 발표했다(2016.12.17).
 - ▲ 臺灣 高雄師範大學華語文教學研究所, 高雄師範大學經學研究所, 臺東大學華語文學系, 文藻外語大學應用華語文系暨華語文教學研究所, 中國 北京師範大學民俗典籍文字研究中心, 中國 香港大學中文教育研究中心, 韓國 漢文教育研究所, 漢字漢文教育學會, 漢文教育學會, 高麗大學校漢字漢文研究所, 大東漢文學會, 日本 東京學藝大學이 공동개최한 第七屆「漢字與漢字教育」에서 논문 「韓國의 2015 改定 漢文科 教育課程의 內容 分析」을 발표했다(2017.01.05~08).
- ▲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 인재육성사업단>이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주최한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제23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회의 :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연구의 재검토”>에서 논문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물계자(勿稽子)’ 이야기 재론(再論)」를 발표했다(2017.01.19~20).
- ❖ 송혁기 교수
 - ▲ 한국연구재단에서 일반공동연구 “한·일 고전문학 속 비일상 체험의 형상과 일상성 회복의 메타포”를 주제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014.09~2017.08).
 - ▲ 한국학연구원에서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 총서> 지정주제 “한국인물평전 18세기 작가

- 평전”을 주제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2016.06~ 2018.12).
- ▲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겨울 한문교실> “조선시대 산문의 재발견:농암집”으로 강연했다(2017.01.16).
- ▲ <경향신문>에 「송혁기의 책상물림」을 연재하고 있다(2015.06.10~현재).

언어학과

- ❖ 김성도 교수
 - ▲ 서울시립미술관 특별전시 <미래자울진화도시> 포럼에서 “거주의 인간학 시론: 거주의 시학적 생태학적 정초”을 주제로 발표했다(2017.02.11).
 - ▲ <오정에코리질리언스> 연구소에서 “An Environmental Humanities Based Inquir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rban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발표했다(2017.02.27).

석탑
교수

주요논문발표 현황

국어국문학과

- ❖ 정우봉 교수
 - ▲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미발굴 작품에 관한 연구-『북행일기(北行日記)』 소재(所載)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0권, 2016.12.12.
 - ▲ 「한국(韓國) 한국학비평사(漢文學批評史)」, 『한국한문학연구』, 64권, 2016.12.15.
 - ▲ 「十九世紀朝鮮文人對呂坤呻吟語及其他著作的接受與意義」, 『中正漢學研究』, 28期, 臺灣 中正大學, 2016.12.
- ❖ 이형대 교수
 - ▲ 「조선후기 현실비평가사와 ‘벌거벗은 생명’의 형상들」, 『한국언어문화』, 61권, 2016.12.09.
- ❖ Jeffrey Holliday 교수
 - ▲ 「Is linguistic injustice a myth? A response to Hyland」,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4권, 2016.12.01.
- ❖ 김정숙 교수
 - ▲ 「아동·청소년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등급 및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8권 1호, 2017.02.13.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평가의 채점 특성 연구」, 『한국어 교육』, 28권 1호, 2017.02.28.

- ❖ 이상우 교수
 - ▲ 「프랑스 발(發) 인문적 글쓰기의 모호한 매력」, 『연극평론』, 84권, 2017.03.

영어영문학과

- ❖ 윤조원 교수
 - ▲ 「리오 버사니의 귀여한 부정성: 친밀함을 넘어서는 ‘친밀함의 가능성들」, 『비평과 이론』, 제22권 1호, 2017.02.28.
- ❖ 김양순 교수
 - ▲ 「엘리자베스 비숍의 시: “치환의 기술”은 “하나의 예술”」, 『현대영미시연구』, 제22권 2호, 2016.11.30.
 - ▲ 「누가 에밀리 디킨슨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엘리슨의 집』과 『에밀리 디킨슨은 죽었다』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수용 양상」, 『미국학논집』, 제48집 3호, 2016.12.31.
- ❖ 전준택 교수
 - ▲ 「드러리 레인 플레이빌 연구 (I): 개릭의 전략」, 『SHAKESPEARE REVIEW』, 2017.03.31.
- ❖ 김동욱 교수
 - ▲ 「The Enlightenment and Its Legacy in Victorian Fiction」,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016.12.31.

- ▲ 「"Time" in Tess of the d'Urbervilles by Thomas Hardy」, 『The Explicator』, 2017.03.20.

한국사학과

- ❖ 정태현 교수
 - ▲ 「'高文' 출신들의 해방 후 시대인식과 진로」, 『韓國史學報』, 2017.02.
- ❖ 박대재 교수
 - ▲ 「기자조선과 소중화」, 『韓國史學報』, 2016.11.
 - ▲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2017.03.
- ❖ 강제훈 교수
 - ▲ 「조선 초기 王室祖上儀禮의 유교적 정비」, 『韓國史學報』, 2017.03.
- ❖ 허은 교수
 - ▲ 「냉전분단시대 ‘對遊擊隊國家’의 등장」, 『韓國史學報』, 2016.11.
- ❖ 이진한 교수
 - ▲ 「高麗圖經」譯註 (1)-序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2016.11.
 - ▲ 「高麗圖經」譯註 (2)-권1 「建國」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2017.02.

주요논문발표 현황 <계속>

❖ Leighanne Kimberly Yuh 교수

- ▲ 「Guns, Farms, and Foreign Languages: The Introduction of Western Learning and the First Official Schools in Late Nineteenth Century Korea」, 『Paedagogica Historica』, Volume 52, Number 6, 2016.12.

심리학과

❖ 박선웅, 허태균 교수

- ▲ 「저신뢰 사회를 만드는 고신뢰 기대? 가족화 장성과 신뢰기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7.02.25.

❖ 남기춘 교수

- ▲ 「자기보고형 ADHD 검사와 전산화된 주의력 과제인 UFOV와 VM 과제와의 관련성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017.01.18.

❖ 최준식 교수

- ▲ 「Forebrain-specific ablation of phospholipase Cγ1 causes manic-like behavior」, 『Molecular Psychiatry』, 2017.1.31.

- ▲ 「Lesions of the lateral habenula, facilitate active avoidance learning and threat extinction」, 『Behavioural Brain Research』, 2017.2.1.

- ▲ 「Segregated cell populations enable distinct parallel encoding within the radial axis of the CA1 pyramidal layer」, 『Experimental Neurobiology』, 2017.2.13.

❖ 김채연 교수

- ▲ 「Gender Differences in Neural Responses to Perceptually Invisible Fearful Face – an ERP Study」,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2017.01.26.
- ▲ 「Graphemes Sharing Phonetic Features Tend to Induce Similar Synesthetic Colors」, 『Frontiers in Psychology』, 2017.03.13.
- ▲ 「Monocular perceptual deprivation from interocular suppression imbalances ocular dominance」, 『Current Biology』, 2017.03.20.
- ▲ 「Audio-visual interactions uniquely contribute to resolution of visual conflict in people processing absolute pitch」, 『PLoS One』, 2017.04.05.

사회학과

❖ 박길성 교수

- ▲ 「Ranking and the multiplication of reputation: reflections from the frontier of globalizing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with F. Collins), 72(1), 2016.10.

- ▲ 「Overcoming ethical issues through symbolic management, cultivating proponents and storytell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s horseracing industry」, 『Asia Pacific Business Review』(with Sou Hwan Kang), 22(3), 2016.10.

❖ 김진영 교수

- ▲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의 우울에 대한 차별적 효과: 중단분석」, 『한국사회학』, 2016.11.

❖ 윤인진 교수

- ▲ 「미디어 접촉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의 변화」(김희상 · 윤인진), 『사회과학연구』, 24(2), 2017.01.

❖ 김수한 교수

- ▲ 「평가 지표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사회학을 중심으로」(한준 · 김수한), 『한국사회학』, 51집 1호, 2017.01.

불어불문학과

❖ Simon KIM 교수

- ▲ 「La poétique de la parabole chez Pier Paolo Pasolini: autour du film La Ricotta」, 『THEOREMES – ENJEUX DES APPROCHES EMPIRIQUES DES RELIGIONS』, n° 10, 2017.01.

중어중문학과

❖ 최용철 교수

- ▲ 「국내외 紅學會의 동향과 紅樓夢의 최신 연구: 學術動向」, 『중국소설연구회보』, 제100호, 2016.12.
- ▲ 「조설근의 詩畵창작과 교류인물 네트워크」, 『중국학보』, 제78집, 2016.11.
- ▲ 「조선후기 中華사상과 華西학파의 <華東綱目>의 간행」, 『중국학논총』, 제54집, 2016.12.
- ▲ 「Korean's Experience with Southern China during the Choson Dynasty in Records of Being Adrift at Sea」, 『Sinosphere Conference 2017, Rice University, Houston, TX, USA』, 2017.3.30.~4.1.

❖ 김준연 교수

- ▲ 「李商隱 梓州幕府 時期 詩 研究」, 『한국중국어문학회』, 2016.11.30.

❖ 조동매 교수

- ▲ 「熟語使用與 “三言” 敘事風格」, 『中國社會科學院 <文學評論>』, 第6期, 2016.11.15.

- ▲ 「從 “看官(聽說)” 看 “二拍” 敘事特色」, 『中國學論叢』, 55輯, 2017.3.30.

❖ 흥윤기 교수

- ▲ 「『삼국연의』에 나오는 투척 · 포획 · 저지暗器에 관하여 (A Study of Throwing, Capturing and Obstructing Hidden Weapons in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三國演義’)」, 『중국문화연구학회』, 2016.11.

한문학과

❖ 윤재민 교수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漢文科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漢文教育研究』, 47, 2016.12.31.

❖ 김연종 교수

- ▲ 「중용의 이해」, 『유학과 현대』, 2016.11.

❖ 심경호 교수

- ▲ 「고문서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역주를 통한 의미의 확장」, 『장서각』, 36집, 2016.10.

- ▲ 「정약용의 해배 이후 학문과 춘천 여행」, 『다산학』, 29호, 2016.12.

- ▲ 「한국 한문산문사 서술의 제문제」, 『한국한문학연구』, 제64집, 2016.12.

- ▲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제127호, 2016.12.

- ▲ 「정치와 교유 – 조선후기의 黨伐과 문학」, 『동방한문학』, 69호, 2016.12.

- ▲ 「韓国と日本における初期公讌詩の比較」, 『Journal of Korean Culture』, 36, 2017.02.

언어학과

❖ 최재웅 교수

- ▲ 「피험자의 배경 변인이 수용성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가?」, 『언어와 언어학』, 74호, 2017.02.

- ▲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코퍼스의 주제구조 탐색」, 『언어와 정보사회』, 30권, 2017.03. 역량
교수

교수 대내외활동

영어영문학과

❖ 조규형 교수

- ▲ 저서 『고슴도치 시대의 여우: 세계와 인문구조, 그 틈과 바깥』(산지니, 2016)으로 한국영어영문학회 YBM 저술상을 수상했다(2016.12.14).

심리학과

❖ 허태균 교수

- ▲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2017.1~현재).
-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2017.1~현재).

❖ 남기춘 교수

- ▲ 한국심리언어학회 학회장으로 위촉되었다(2017.2~현재).

❖ 김재연 교수

- ▲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2017 학술대회> 조직위원을 맡았다.
- ▲ 한국인지과학회 학술이사 및 편집위원, 한국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학술홍보위원, 한국색채학회 이사, 한국음악인지지각학회 이사, 대한뇌기능매핑학회 대의원 및 학술위원을 맡았다.
- ▲ 국제학술지 리뷰(『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Emotion』, 『Multisensory Research』, 『PLoS ONE』, 『Frontiers in Psychology』 등)를 맡았다.
- ▲ 국회 입법고시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2017.01).

사회학과

❖ 박길성 교수

- ▲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2016.10.14).
- ▲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 한국 총동문회 ‘자랑스런 동문’으로 선정되었다(2017.02.10).

❖ 김철규 교수

- ▲ 2016년 1학기 ‘사회변동론’ 수업이 우수강의상을 수상했다.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전문 공공기관 한식재단이 한식문화관 4층 체험마당에서 개최한 <장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토론했다(2016.11.18).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주최한 <환경과 미래 포럼: 4차산업혁명과 환경> 토론에 참석했다(대우재단빌딩, 2017.01.25).
- ▲ 제17대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취임했다(2017.02).
- ▲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에서 “해방기 이후 한국 상례 변화에 따른 제도 및 사회적 특성 고찰”(양순미, 유일상)에 대해 토론했다(2016.12.16).
- ▲ 서울시에서 주최한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전문가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했다(2017.03.13).

❖ 윤인진 교수

- ▲ 주간조선 스페셜리포트 「이민자에서 시민으로 113년 美 한인 이주사」를 기고했다. 구체적으로 1903~1945 하와이 노동이주와 미국 본토 재미주, 1945~1965 광복과 한국전쟁, 1965~1992 미국 이민법 개정과 신(新)이민 등에 대해 설명했다(2016.10.03).
- ▲ 고려대학교에서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 방안: 지역주민 사회통합과 지역발전 방안의 모색.”라는 주제로 발표했다(2016.11.18).
-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열린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가 주최한 정책워크숍에 참석했다(2016.11).
- ▲ 도쿄대 대학원 프로그램 <Integrated Human Sciences for Cultural Diversity>의 국제멘토로 참여하여 4명의 대학원생들을 지도했다(도쿄대 코마마 캠퍼스, 2017.02).
- ▲ 한국이민학회의 부회장에 선임되었다(2017.03).
- ▲ 프랑스극동연구원 서울 분원에서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를 주제로 강연했다(2017.03.30).

❖ 조대엽 교수

- ▲ 성북구청에서 <마을 민주주의의 모델-작은 정치의 큰 상상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대엽 교수는 “성북형 마을민주주의 모델” 기조발제 및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았다(2016.10.11).
- ▲ 대전세종연구원 <제20회 미래기획포럼>에서 “한국사회 대개조의 방향과 과제-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성장국가”를 강연했다(2017.02.17).
-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였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노동의 미래” 토론에 참여했다(2017.03.15).

❖ 이명진 교수

- ▲ 성북구청 심포지엄 <마을 민주주의의 모델: 작은 정치의 큰 상상력>에 참석 및 “마을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표했다(2016.10.11).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활기찬 초고령사회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방향과 과제>에 참석하여 토론했다(2016.11.07).

❖ 임인숙 교수

- ▲ 한국가족학회 추계 학술대회 <가족 범죄의 현실과 정책제안>에 참석하여 사회를 맡았다(2016.11.26).

❖ 김진영 교수

- ▲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혼인지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성별,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2016.11.25).

❖ 김수한 교수

- ▲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에서 “한국의 기업문화와 성희롱”에 대한 논문을 장안식 교수와 함께 발표했다(2016.12.16).

독어독문학과

❖ 박성철 교수

- ▲ AGT(아시아 독어독문학자 대회) 발표 논문집 책임 편집자를 맡았다.

❖ 김용현 교수

- ▲ 「발저의 ‘사랑에 빠진 남자’에 나타난 괴테의 질투에 대하여-진화심리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독일어문학회에서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2016.10.21).

일어일문학과

❖ 서승원 교수

- ▲ 2017년부터 국민일보 새해 오피니언인 한반도 주변의 정치·경제·외교 동향을 진단하는 <한반도 포커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문학과

❖ 심경호 교수

- ▲ 제4회 교우회학술상(인문사회부문)을 수상했다.

❖ 송혁기 교수

- ▲ 한국실학학회 편집위원(2013.04~2017.03), 동양고전학회 편집위원(2015.03~2017.02), 민족어문학회 총무이사(2015.11~2017.11), 한국한문학회 대외정보이사(2015.05~2017.04)를 맡고 있다.
- ▲ 2016학년도 1학기 석탑강의상을 수상했다(2016.12.13).
- ▲ 대학교육개발원 주최 제1회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우수상을 수상했다(2017.03.03).

❖ 임준철 교수

- ▲ 2016학년도 1학기 석탑강의상을 수상했다(2016.12.13).
- ▲ 한국고전문화회 『고전문화연구』 편집위원을 담당하고 있다(2017.3.~현재).
- ▲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한 제1회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우수상을 수상했다(2017.03.03).

언어학과

❖ 김성도 교수

- ▲ <영상문화학회> 회장에 취임했다(2015.04~현재).
- ▲ <Semiotica>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2005~현재).
- ▲ <한국 기호학회> 편집위원을 맡았다(2017.01.01~현재). 석탑교수

문과대학 'BK21 플러스사업단(팀)' 활동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생 양성을 위한 'BK21 플러스 사업' 운영

BK(두뇌한국·Brain Korea)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 학생 및 신진 연구인력(박사후과정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서,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 사업을 거쳐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3단계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을 통합해 'BK21플러스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6개 사업단과 10개 사업팀, 총 36개 사업단(팀)이 'BK21플러스사업'에 선정되었으며(총 사업비 230억원), 문과대학에서는 3개 사업단과 1개 사업팀(2017년 총 사업비 약 20억원)이 참여하고 있다.

문과대학의 'BK21플러스사업' 선정은 연구·사업비 확보 차원을 넘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단과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석탑교수

단위 : 원

학 과	사업단(팀)명	사업분야	사업단장	17년 사업비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사업단	인문사회	최호철	753,185,000
중일어문학과	BK21플러스 중일어문학사업단	인문사회	정병호	711,779,000
한국사학과	BK21플러스 한국사사업단	인문사회	이진한	363,677,000
불어불문학과	BK21플러스 번역불문사업팀	인문사회(팀)	이영훈	177,220,000

<BK21 플러스 한국어문학미래인재육성사업단>

- ▲ 2016학년도 제1학기 8개 연구 소모임 지원을 2016년도 제2학기에는 11개의 연구 소모임으로 확대하여 지원했다(2016.11.10.~2017.01.31).
- ▲ <제22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대회>를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에서 "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했다(2016.11.18.~19).
- ▲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 고전 강의 및 고전 번역 업무를 총괄하는 공근식 교수를 초빙하여 취업특강을 실시했다(2016.11.30).
- ▲ <제23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대회>를 미얀마 양곤외국어대학교에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문학 교육, 연구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했다(2017.01.19~20).
- ▲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차세대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에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 제2학기 참여대학원생 학술회>를 개최했다(2017.01.23).
- ▲ 글쓰기 예비 교수자를 위해 글쓰기를 타인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는 연속강좌로 글쓰기 강의로의 취업을 위한 글쓰기 전문가 과정 특강을 개최했다(2017.02.06~10).
- ▲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교에서 <2017 교토, 서울, 타이페이 동아시아 차세대 포럼>을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미래인재육성사업단과 리츠메이칸 대학교 문학부·대학원 문학연구,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BK21플러스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사업단과 공동 개최했다(2017.02.15~16).
- ▲ 4차년도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논문을 게재한 참여대학원생 3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2017.02.28).
- ▲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세계언어문화화학부와 MOU를 체결했다(2017.03.01.~2020.02.28).

<BK21 플러스 번역과 프랑스문학 연구인력 양성사업팀>

- ▲ 해외석학초청특강의 일환으로 Daniel Gile 교수(파리3대학 통번역대학원 명예교수)가 "Identité de la traductologie en tant que discipline"를 주제로 번역학 특강을 진행했다(2016.10.17).
- ▲ 해외석학초청특강의 일환으로 Michel Delon 교수(파리 소르본 대학 명예교수)가 "Esthétique et philosophie des ruines au XVIII^e siècle"과 "Le roman du premier homme"을 주제로 두 번에 걸쳐 특강을 진행했다(2016.11.02, 11.04).
- ▲ Gérard Dessons 교수(파리8대학 교수)가 <프랑스문학과 시학> 집중세미나를 3일간 개최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의 연구발표에 대한 Dessons 교수의 논평과 논문지도도 진행되었다(2017.1.23.~25).

<BK21 플러스 중일어문학사업단 중어중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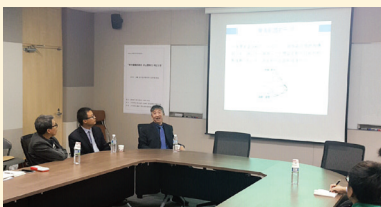
- ▲ 해외석학초청강연회의 일환으로 이뤘판(衣若芬)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성-일상생활에서의 '文圖學'"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으며(2016.10.17), 후지이소조(藤井省三) 일본 동경대학(東京大學) 중문과 교수를 초청하여 "루쉰과 무라카미 하루키 魯迅與村上春樹"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2016.10.21). 또한 덩쓰잉(鄧思穎) 교수를 초청하여 "현대중국어 문법 성분에 대한 통사적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2016.11.10).
- ▲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된 국제학술대회 <Korea University and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학회>에 참석하여 발표 및 학술교류를 진행했다(2017.02.01~03).
- ▲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2017 교토 서울 타이페이 동아시아 차세대 포럼'에 참석하여 발표 및 학술교류를 진행했다(2017.02.15~16).

<BK21 플러스 중일어문학사업단 일어일문학과>

-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지린대학 외국어학원 주이푸(周異夫)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근대 문단과 내셔널리즘"을 주제로 해외석학초청강연회를 진행했다(2017.2.18).
- ▲ 고려대학교 청산 MK문화관에서 국립 류큐대학 이시하라 마사히데(石原昌英)교수와 긴조 나옴(金城尚美)교수를 초청하여 "沖縄県における言語政策と日本語教育"을 주제로 해외석학초청강연회를 진행했다(2017.2.22).

<BK21 플러스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 ▲ 해외석학 초청특강의 일환으로 王穎(중국 절강해양대학 인문학원 원장)이 "東中國海航路와 舟山群島の 해상교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2016.11.02).



鄭京日(중국 연변대 역사계 교수)이 "최근 북한학계에서 이룩된 유적 조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2016.11.17).



또한 사카이 데쓰야(酒井哲哉 일본 동경대학 종합지역연구과 교수, 일본 정치외교사, 국제관계사상사, 외교론 전공)가 "戰間期 일본의 국제질서론"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2017.01.10).



- ▲ 학술행사: 이근호(명지대 연구교수,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저자)를 초청하여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했다(2016.12.15).

- ▲ 구도원(한국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이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생태민주주의"에 대하여 신년특강을 진행했다(2017.01.03).



- ▲ 박현숙(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한국사연구회 연구윤리위원장)이 "역사 글쓰기와 연구윤리"에 대하여 동계 연구윤리특강을 진행했다(2017.01.09).



- ▲ 2017년 동계 취업멘토링을 개최했다(2017.02.09).



- ▲ <2017 교토·서울·타이페이 동아시아 차세대 포럼>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2017.02.15).

코어사업단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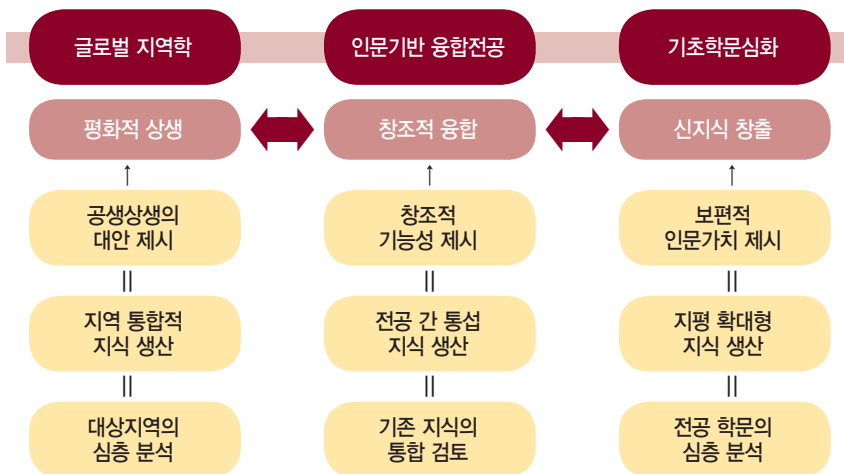
인문학에 기초하여 공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 생성 및 교육이 바로 코어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이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이하 코어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것은 2016년이다. 본교 문과대학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연간 약 35억 원을 인문학 강화사업을 위해 지원받는다.

사업단에는 이재훈 단장을 필두로, 강제훈, 정병호 부단장들과 문과대학 13개 학과의 115명 교수들이, 강제훈, 정병호 부단장님들과 문과대학 13개 학과의 115명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단과대학 24개 학과, 59명 전임 교원의 참여로 코어사업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으며, 전문연구인력 18명을 확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해졌다.

코어사업은 크게 세 개의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지역학 모델, 둘째, 인문기반 융합전공 모델, 셋째, 기초학문심화 모델로 나뉘어 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세상을 품고 삶의 바다에 도전하는 지성'을 지향하여, 인류의 보편적 수준에서 세상의 현재를 이해하고 창조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생의 지평선을 확대하는 수준의 지식 생성 및 교육을 목표로 한다.

【각 모델 목표 및 전략】



첫 해, 첫 사업실행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 코어사업단은 지난 1차 년도에 이미 괄목할만한 실적들을 만들어냈다. 우선, 문과대학에 진학 중 이면서 대학원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 89명이 매월 50만원의 학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단은 또한 368

명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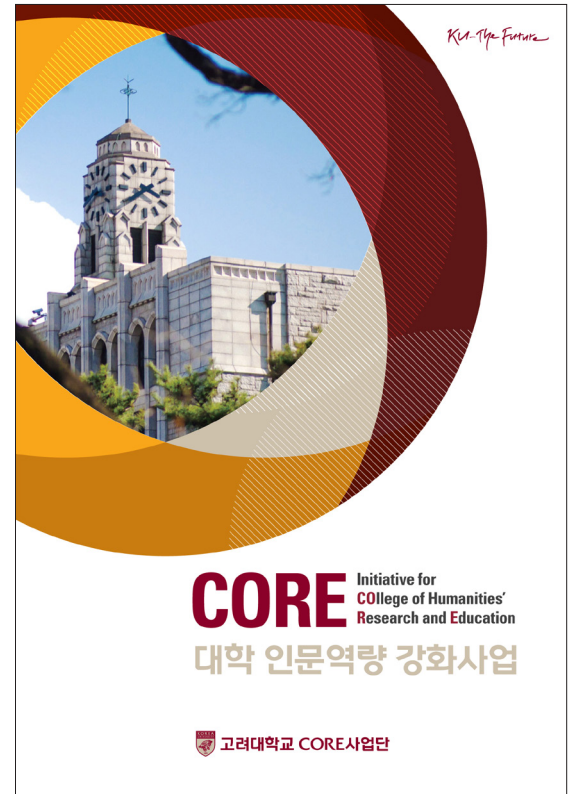
또, 학생들의 인문고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개설된, 인문고전학습 프로그램(일명, Veritas Forum)은, 여러 환경적 요소들 때문에 미처 정규과목에 편성되지 못했던 희귀인어 학습반과 고전원서강독반으로 구성되었다. 인문고전학습반 외에도 비정규교과 교육 프로그램, lab, 참여학생 자율학습모임 등에 대한 강사료 및 도서 지원으로 인문학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그 기회의 폭을 넓게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책으로 접하는 지식을 체험적인 것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문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다.

인문기반 융합전공은 다음의 7개 학과로 나뉘어 있다. 법적 논리와 사회문화적 연관성을 연구하는 '인문학과 정의', 창의적인 문화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문학과 문화산업',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고자 하는 'GLEAC',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을 꾀하는 'LB&C', IT산업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인문학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학', 라틴아메리카 시장연구 및 개척을 위한 'EML', 융복합적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료인문학' 등이다.

코어사업 1차 년도에 융합전공 모델에서 시행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문과대학이 유관기관 및 회사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현장경험에 취약했던 인문학도들에게 값진 경험의 기회였음에 틀림없다. 또한 본 모델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전문가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설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문학도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지역학 모델에서는 우선, 해당학과(노어노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일어일문학과)의 강의 중 30% 이상을 지역학 관련 강좌로 개설하였다. 나아가 효과적인 지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해당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75건의 MOU를 체결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 교환학생, 7+1프로그램 해외장기연수생들 중 일정 명을 선정하여, 학업장려금 및 프로젝트수행비를 지원했다.

코어사업단에서는 대학본부와의 협조 하에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 및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도 돕고 있다. 이렇게 인문학에 기초하여 공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 생성 및 교육이 바로 코어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다. 이제 사업 2차 년도를 맞아 사업단에서는 대학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전국 17개 대학에서 코어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본교 문과대학의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문화의 가치를 추구



박준구 회장(철학과 62)은 현재 화학품 전문 무역상사인 우신캠텍 회장으로서 문과대학의 후학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억원을 문과대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박준구 회장은 모범 납세자 표창(4회), 대통령 표창(2회), 산업자원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상과 표창(3회)을 수상하였으며, 문과대 교우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평소 경영자의 입장에서 문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박준구 회장의 기금은 문과대학의 창의적 후학 양성 및 인문학 연구 프로그램인 <인문저술사업>, <인문융합세미나>, <인문특강> 사업의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석탑교수**

① 2014년도 박준구 기금 인문저술 지원 선정자 목록

학 과	성 명	저서 제목	발간현황
국어국문학과	최귀묵	베트남의 역사와 문학	발간예정
영어영문학과	김기호	뇌 비밀의 열쇠를 쥔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함께 풀어보는 뇌 비밀 이야기	발간예정
영어영문학과	조규형	선물(贈物) - 선순환 체계 시론(試論)	발간
철학과	손병석	필로디카이오스(philodikaios) 되기: 정의를 사랑하는 인간의 탄생	발간
심리학과	고영건	자아(自我)의 탐구(探究)	발간예정
독어독문학과	이기식	독일 통일 25년 후	발간예정
서어서문학과	안영옥	돈키호테 읽기	발간
언어학과	김성도	풍경기호학 : 풍경연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발간예정

② 2015년도 박준구 기금 인문저술 지원 선정자 목록

학 과	성 명	저서 제목	발간현황
국어국문학과	정우봉	조선시대 사람들, 자기 삶을 고백하다	발간예정
한국사학과	최덕수	1882년 조선과 세계(와 만나다)	발간예정
한국사학과	최광식	<삼국유사>의 역사문화 기행	발간예정
독어독문학과	김재혁	서정시의 미학-독일 시와 창작과 번역	발간예정
불어불문학과	조재룡	번역하는 인문학	발간예정

③ 2016년도 박준구 기금 인문저술 지원 선정자 목록

학 과	성 명	저서 제목	발간현황
한문학과	심경호	옛 그림과 시문	발간예정
사회학과	김철규	음식과 사회: 사회학적으로 먹기	발간예정
국어국문	김기형	판소리, 캐릭터를 그린다.	발간예정
물리학과	원은일	우주 탄생의 신비를 찾아서	발간예정

④ 인문융합세미나 운영 현황 (2016학년도 2학기 과목운영 결과)

분반	대표교수	공동강의자	세미나주제	수강 인원	수강생 전공인정현황	
					전공선택	일반선택
01	권보드래	고병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19	12	7
02	윤조원	조재룡 송상기	근대와 주체성	16	16	0
03	김철규	정혜경	먹거리에 관한 초학제적 접근	20	19	1
04	김수한	윤삼석 이용란	근대성에 관한 인문 융합적 탐구: 철학, 미학, 사회학	9	8	1
총 수강인원				64	55	9

⑤ 인문융합세미나 운영 현황 (2017학년도 1학기)

분반	대표교수	공동강의자	세미나주제	수강 인원	전공인정현황	
					전공선택	일반선택
01	손병석	김경현	고대 그리스-로마세계에서 인간, 국가, 전쟁	16	14	2
02	윤인진	이창호	세계의 디아스포라	8	7	1
총 수강인원				24	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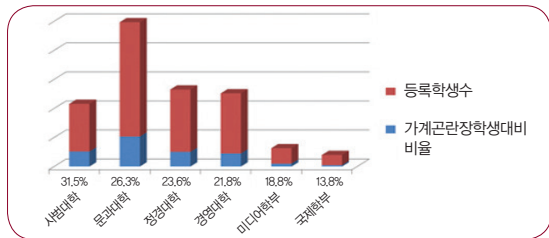
장학금 현황

문과대학 학부 가계곤란장학금 현황 (2016년도 기준)

2016년 1학기와 2학기 가계곤란 장학금을 수혜한 문과대학 재학생은 평균 1035명으로서 전체 등록학생 3934명의 26.3%에 해당한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이 비율은 사범대학 31.5%에 이어 2위이지만, 실제 해당자수는 사범대학 517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특히 1035명이 수혜한 가계곤란장학금은 문과대 재학생이 수혜한 장학금 총액의 54.8%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는 생활고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과대학 재학생이 인문사회계열 가운데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계곤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석탑교수**



대 학	등록학생 수	가계곤란장학생 총수	등록학생대비 비율
사범대학	1641	517	31.5%
문과대학	3934	1035	26.3%
정경대학	2146	506	23.6%
경영대학	2070	451	21.8%
미디어학부	531	100	18.8%
국제학부	349	48	13.8%

학과발전기금 출연

국어국문학과

故 인권환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님의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 배우자이신 이우주 여사와 장남 인치범 교수(행정 88, 안랩 커뮤니케이션실 상무)가 국어국문학과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이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인권환 교수님의 학문적 자취를 이어갈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장학금을 마련하여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달라며 1억 원을 지난 3월 2일 기부했다. 한 교수의 기부금은 심리학과 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긍정심리학을 전공한 한 교수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인데,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나니 그 기쁨이 매우 크다”며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직접 실행하니 더욱 보람됐다”고 말했다.



가 장학기금을 전달하였다. 부동산(10억 900만원)으로 조성된 사회학과 대학(원)생 대상 장학기금으로 본 장학기금의 지급 유형은 <1. (대학원) 최우수 신입생 장학금>, <2. (대학원) 우수 연구 장학금>, <3. (학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고인의 숭고한 뜻과 정성을 기리고자 문과대학(서관) 307호 강의실을 “최재석 · 이춘계 강의실”로 명명하였다. **석탑교수**



심리학과

한성열(문과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30년 동안 강의해온 본교에서 정년퇴임하면서 후학들을 위해 써

사회학과

故 최재석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후학들을 위한 고귀한 뜻을 이어 배우자인 이춘계 여사



발전기금 출연현황 (2016.01.01-2017.04.14)

성 명	인명구분	약정회원구분	기부구분(대분류)	기부부세(소분류)	약정금액
연성정밀화학(주)	기업체	기업	지정발전기금		5,000,000
이우주(故 인권환 명예교수)	퇴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00
서연호	퇴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송하춘	퇴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김인환	퇴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정우봉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이형대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장호현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2,000,000
홍종선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2,000,000
강한국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2,000,000
이상우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김정숙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2,000,000
김기형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신지영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500,000
장경준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8,000,000
권보드래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최귀목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500,000
오형엽	재직(교직원)	교직원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이자흠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500,000
강문희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김영철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0
박임자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5,714,500
정운석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국어국문학과	500,000
황의준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500,000
조상현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송홍규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500,000
이도민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정양욱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5,000,000
이효상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0
홍순경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200,000
황화상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500,000
박수호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500,000
이영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000,000
86학번동기회(입학30주년준비위원회)	교우회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5,000,000

“기금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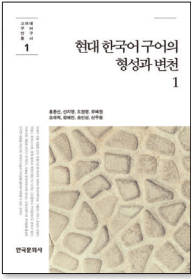
단위 : 원

성 명	인명구분	약정회원구분	기부구분(대분류)	기부부세(소분류)	약정금액
국문과66동기회	교우회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1,500,000
국문과74학번일동	교우회	교우	장학금	국어국문학과	6,200,000
김삼욱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노어노문학과	5,000,000
루스끼미르재단	재단	일반	지정발전기금	러시아·CIS연구소	44,727,482
권정혜	재직(교직원)	교직원	지정발전기금	문과대학	3,000,000
윤창근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문과대학	1,000,000
최기홍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문과대학	3,000,000
86학번동기회(입학30주년준비위원회)	교우회	교우	지정발전기금	문과대학	2,000,000
김도근	학부모	일반	지정발전기금	문과대학	5,000,000
이춘계(故 최재석 교수)	일반	일반	장학금	사회학과	1,090,000,000
오숙희	퇴직(교직원)	교직원	지정발전기금	사회학과	5,000,000
김아림			지정발전기금	서어서문학과	10,000,000
한성열	재직(교직원)	교직원	지정발전기금	심리학과	100,000,000
박진현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심리학과	1,000,000
유진기업(주)	기업체	기업	지정발전기금	심리학과	5,000,000
(주)영테크필름	기업체	교우	연구기금	언어정보연구소	5,000,000
(주)에듀토셀	기업체	기타	연구기금	언어정보연구소	12,000,000
일어일본85학번 동기회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일어일본학과	7,000,000
고려대 철학과	단체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12,934,756
김은경	재직(교직원)	교직원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200,000
김승겸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100,000
양광호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100,000
윤중순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100,000
최준호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200,000
하 룡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100,000
박순영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100,000
김연웅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100,000
권영우	졸업생(교우)	교우	장학금	철학과	1,000,000
박재형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5,000,000
유양훈	졸업생(교우)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100,000
바다출판사	기업체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3,000,000
고려대철학과83동기회	단체	교우	지정발전기금	철학과	900,000
재단법인우신장학재단	재단	기타	장학금	철학과	3,000,000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기업체	기타	지정발전기금	한국사회연구소	10,000,000

신간소식

현대 한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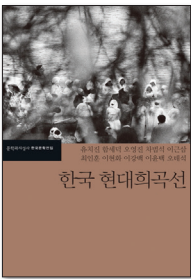
● 신지영, 홍중선 교수 (공저), 한국문화사, 2016.



20세기 초는 한문 중심이던 사대부들의 문자 언어가 국한문 혼용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언문일치, 즉 문어가 구어에 가까워지는 대장정이 점차 시작되고, 표기법의 통일화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동시에 일제의 강점으로 한국어에 일본어의 영향이나 유입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정치·사회·문화적 격변기였던 20세기 초 근대 전환기 우리말의 변화를 세밀히 연구해, 오늘날의 우리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국 현대희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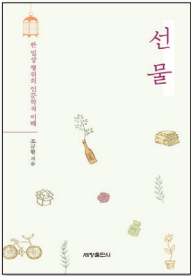
● 이상우 교수 (편자), 문학과 지성사, 2017.



1930년대 사실주의극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유치진의 「토막」과 함세덕의 「산허구리」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각 시기마다 시대정신과 연극 경향을 대표할 만한 희곡을 골라 선별하여 묶었다. 작품선별 기준은 시대별 대표 극작가들의 희곡 중에서도 가장 작품성과 대중적 지지를 받은 희곡 10편을 통해 희곡의 사실주의 경향과, 비사실주의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선물: 한 일상 행위의 인문학적 이해

● 조규형 교수 (저서), 세창출판사, 2017.



일상의 우리는 굳이 선물이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선물로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런 까닭에 '선물'에 대한 인문학적 차원의 성찰은 자못 '생똥맞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물에 대해 따져 물어 가다 보면 오늘의 체제가 인류의 기나긴 역사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겸손한 인식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자기 시대에 대한 점검을 낳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인문학적'인 주제이다.

교사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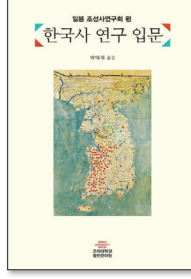
● 김홍규, 황현산 교수 (공저), 세종서적, 2017.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답을 구한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불행한 사태가 대통령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절반 이상의 국민이 그를 지지한 정치적 선택과도 연관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에서 우리 사회에 작동하는 시민의 판단력이 얼마나 지성적인지 반성적 차원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이 책은 그 답을 “인문정신”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찾고 있다. ‘생각하는 시민’을 키우는 ‘시민 인문교육’이야말로 이 사회의 긴급한 현안이자 한국 미래 교육의 핵심임을 내세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오랜 시간 성심과 성의를 다해 높은 공력을 쌓아온 ‘스승’들—황현산, 정성현, 김홍규, 이도흙, 조성룡, 나희덕, 박수밀, 함돈균을 초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사 연구 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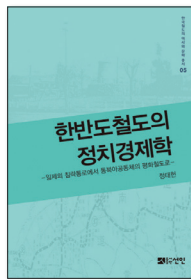
● 박대재 교수 (역서),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일본의 조선사연구회가 2011년에 엮은 『조선사연구입문』을 우리말로 옮긴 책으로, 1980년대 이후 30년간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의 최신 성과를 정리했다. 선사시대의 한반도, 국가형성과 삼국,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 조선, 개항기·대한제국기, 식민지기, 현대사 등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 제기된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반도철도의 정치경제학

● 정태현 교수 (저서), 선인, 2017.



근대나 자본주의를 거론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가주권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은 일본이 수탈과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에 세운 철도, 학교, 공장 등 근대의 걸모습을 보고 착시현상에 빠지곤 한다. 근대-자본주의와 식민지적 근대-식민지자본주의 사이에서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걸모습이다. 양자의 질적 차이를 혼동하는 근대주의 역사상은 기간산업인 철도를 볼 때도 철도주권 문제를 간과한다. 근대주의에 매몰된 상황 인식은 ‘국망’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근대주의 망령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철도는 근대와 식민지적 근대의 차이를 몰각한 근대주의 환상을 시각(視覺)적으로 깊게 심어준 ‘근대 문물’이었다.

심상을 활용한 인지치료

● 권정혜 교수 (공역), 시그마프레스, 2017.



Ann Hackmann, James Bennett Levy, Emily A. Holmes의 『Oxford Guide to Imagery in Cognitive Therapy』을 이종선과 역주하였다. 이 책은 정신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심상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임상가들에게 임상 실무에서 심상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체계적이고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석유식량의 조건

● 김철규 교수 (공역), 고려대출판문화원, 2016.



탄화수소물은 재생가능하지 않은 고갈될 자원이며, 피크 오일의 농업 체계에 대한 영향은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화석연료의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경우 어떠한 재앙을 맞게 되는지는 바로 북한이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사례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농업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북한처럼 제재와 고립으로 인해 식량위기에 빠졌던 쿠바가 정부의 정책과 과학자들의 유기농법 개발, 농업생산조직의 개혁, 도시농업 등을 통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구조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가능한 풀뿌리 수준에서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세계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 김철규 교수 (공역), 도서출판 따비, 2016.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30~40년 동안 진행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와 정치, 개인의 ‘경제화’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개별적인 행위자, 특히 기존에 농업의 주체였던 농민이나 먹거리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에게는 한 줌의 권력도 주어지지 않은 반면, 농업과 먹거리와 관련한 중요한 권력은 이미 농업관련산업이 장악했다. 이 책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농업과 먹거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

생태복원의 인문학적 상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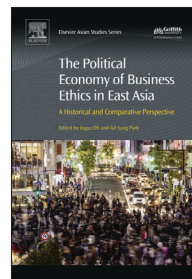
● 김철규, 김성도 교수 (공저) 집문당, 2017.



이 책은 한국에서 생태복원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태복원 담론의 개념적 열개와 인식론적 토대를 비롯해 생태복원의 미학적 윤리적 토대와 서사성의 차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문학과 비평사를 전공한 또 다른 전공자는 생태복원의 문명사적 의의와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비롯해 심미적 상상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마련했다.

The Political Economy of Business Ethics in East Asia

● 박길성 교수 (공역), Elsevier, 2016.



The Political Economy of Business Ethics in East Asia: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deals with modes of ethical persuas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the national economy in East Asia, from the periods of the fourteenth century, to the modern era. Authors in this volume ask how, and why, governments in pre-modern Joseon Korea, modern Korea, and modern Japan used moral persuasion of different kinds in designing 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4월 혁명과 한국의 민주주의

● 조대엽 교수 (공저) 4·19혁명국민문화재위원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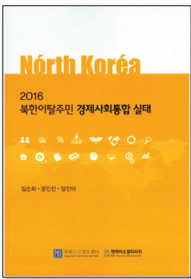


이 학술자료집은 4·19혁명국민문화재위원회와 공동 발간했다. 4·19혁명 연구권위자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와 조대엽 고려대 교수 (제4장 ‘4월혁명과 한국의 사회운동’ 집필), 유세희 한양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오제연 성균관대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자료집은 4·19의 전개과정과 이승만 정부 붕괴 후 정치사회 민주화 경과, 1960년 이후 각 시대별 사회운동의 특성, 혁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 등을 담고 있다. 서울대 재학생으로 직접 4·19에 참여한 유세희 교수의 경험담 ‘내가 겪은 4.19혁명’도 포함됐다.

신간소식 <계속>

2016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 윤인진 교수 (공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다룬 이론서다.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사회의 반기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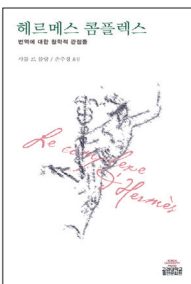
● 조대엽, 이명진, 김원선, 김수한 교수 (공저), 나남, 2017.



한국사회는 대기업 및 재벌에 대한 높은 반감과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 한국사회에서 반기업정서가 강하게 뿌리내린 역사적 근원은 무엇인가?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반기업문화를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친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 책은 한국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기업인식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탐구를 시도한다. 일반시민,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언론기관의 기업인식을 분석했을 뿐 아니라 1945년부터 2010년대까지 반기업담론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한다.

헤르메스 콤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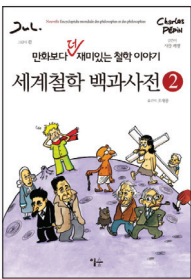
● 손주경 교수 (역서),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번역에 대한 철학적 관점들’이라는 부제를 지닌 이 책은 기존의 번역이론을 비판하며 시학으로서의 번역, 독서행위로서의 번역, 낯설이 아닌 동일성에 토대를 둔 번역, 그리고 창조적 결과물로서의 번역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이 책에 따르면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이동이 아니라 한 편의 시에서 다른 한 편의 시로의 이동, 언어의 창조력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는 텍스트에 대한 시학적 접근의 결과이다.

세계철학 백과사전 2

● 조재룡 교수 (역서), 이숲, 2016.



철학의 역사 3천 년을 수놓은 위대한 철학자들뿐 아니라 주디스 버틀러, 피터 싱어, 촘스키,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 현대 인문학자들도 소개했다. 각 인물마다 재기발랄, 촌철살인의 만화가 두 쪽에 걸쳐 펼쳐지고, 이어서 두 쪽 혹은 네 쪽으로 구성된 핵심적이고 유머러스한 해설이 뒤따른다. 인문학과 철학에 관한 만화 인문 교양서이다.

한 줌의 시

● 조재룡 교수 (저서), 문학과지성사, 2016.



이 책은 프랑스 현대시와 비평, 그리고 번역이론을 공부한 불문학자이자 번역가인 조재룡 교수의 시 비평의 내용과 형식, 개념과 언어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비평문 31편을 담고 있다.

Kim Dong-in, Les Recherches du Professeur K et autres nouvelles

● Simon KIM 교수 (역서), Editions l'Atelier des Cahiers, 2017.



Dans les nouvelles de Kim Dong-in, ce paysage idyllique évoquant un ordre ancien qui semble immuable, se retrouve dans la tourmente des années 1930, celle d'une société en mutation : l'urbanisation de Pyongyang avec le cloaque des bordels qui l'accompagne, les brimades et les humiliations du colonisateur nippon jusqu'à la perte totale de dignité des Coréens qui conduit à une emprise croissante des instincts sur les restes d'une poésie ancienne. C'est tout cela, avec sensibilité mais sans fausse pudeur, que Kim Dong-in décrit et qui fait de lui l'un des plus grands écrivains coréens de la période coloniale(1910-1945).

사랑받지 못한 사내의 노래

● 황현산 (역서), 민음사, 2016.



기욤 아폴리네르 연구로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황현산 문학평론가가 아폴리네르 대표시를 가려 뽑았다. 이 선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신포탄」, 「도시와 심장」 외 네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알코올』과 『상형시집』에서 뽑은 것이다. 대표 시집 『알코올』에서는 자유시의 모범작을 중심으로 시를 선택하였으며, 『상형시집』에서는 전위적 시론으로서의 시와 잘 만들어진 상형시를 뽑아내어 번역하였다. 3부 '기타 시편'에서는 최근 프랑스 에니메이션학교에서 아폴리네르의 시편을 바탕으로 제작한 동영상의 원작들을 번역 수록하였다. 모든 시에는 치밀한 주석을 덧붙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왔다.

동물시집

● 황현산 교수 (역서), 난다, 2016.



아폴리네르의 『동물시집』을 번역한 책이다. 아폴리네르의 시 30편과 라울 뒤피의 판화 30점이 한 권을 이뤄 아름다운 합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짧으면 4행, 길면 6행의 시와 한 편의 흑백 판화만으로 우리 '인간사'의 전부를 표현했다.

선배수업

● 황현산 (공저), 서해문집, 2017.



이 책은 지난 2016년에 출간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나이들 수업』의 시즌 2 프로젝트다. 전작이 '문제'가 아닌 '존재'로서의 노년을 고민하면서 '중년 이후의 존엄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모색이었다면, 이번에는 '선배시민'을 키워드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나이들'이란 무엇일지에 초점을 맞춘다. 여섯 강좌에 일관되게 흐르는 논지는 자아를 갱신하면서 세상과 새롭게 접속하려는 것, 삶의 주인공으로 중심을 확고히 세우면서도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울 것을 촉구한다.

X : 1990년대 한국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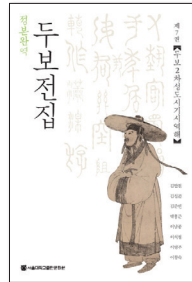
● 황현산 (공저), 현실문화, 2016.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동명의 전시를 위해 현실문화와 공동으로 발간한 책(도록)이다. 전시와 책을 기획한 큐레이터 여경환은 90년대를 잠정적으로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두보2차성도시시기시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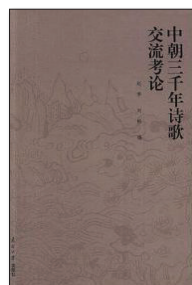
● 김준연 교수 (공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두보가 광덕 2년(764)에 다시 성도로 돌아와 임무의 추천으로 공무원외랑 벼슬을 하다가 운안을 거쳐 대력 원년(766)에 기주에 도착하기 전의 작품 100제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당에 다시 돌아와 늙은 나이에 막부에서 벼슬하지만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감회를 노래한 시가 많으며, 1차 성도 시기와는 또 다른 완숙한 시의 경치가 펼쳐진다.

中朝三千年詩歌交流考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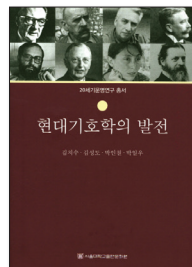
● 심경호 교수 (공저), 南開大學出版社, 2016.



이 책은 중국 남개대학 문학원, 한국 열상고전연구회 및 연민학회의 공동 주최로 2015년 6월 20일 중국 남개대학에서 개최한 “한중 삼천년 시가 교류 국제학술대회”의 출판물이다. 심경호 교수는 “조선의 과시와 운서”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과시(科詩)의 형식과 작시(作詩)에 활용된 운서(韻書)를 개괄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에는 “朝鮮의 科舉詩與韻書”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으며, 번역은 천진외국어대학의 劉暢 교수가 담당하였다.

현대기호학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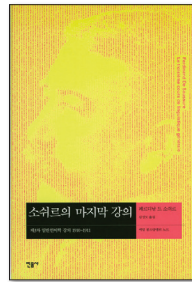
● 김성도 교수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 책은 기호학의 본질, 기호학의 역사, 현대기호학이론, 기호학의 발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쉬르의 마지막 강의

● 김성도 교수 (역서), 민음사, 2017.



이 책은 페르디낭 드 소쉬르가 제네바 대학교에서 행한 세 차례의 ‘일반언어학 강의’ 가운데 마지막 훈을 불사르며 열강했던 ‘제3차 일반언어학 강의’의 육성을 받아쓴 노트이다. 특히 이 책에는 기존의 ‘일반언어학 강의’ 통속본과 일본어·영어 번역본에서 누락된 100여 쪽에 달하는 ‘지리역사언어학’을 최초로 번역해 실었다. 또한 부록으로 소쉬르가 사용한 주요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들의 용어 표와 프랑스어·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번역어 대조표를 실었으며, 소쉬르의 언어 이론을 현대 인문 지식의 관점에서 해설한 300여 개의 주(註)를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석탑 교수**